

# 익산 도심 속 대형 정원 '시민 품에'

### 모인공원 준공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3호 민간특례 도시공원의 성공 9만 3000여㎡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문화놀이터 주제로 도서관 등 배치

익산시 모현동 '모인공원'이 3년여 간의 공사 끝에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세 번째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익산시는 지난 31일 모인공원 준공식을 열고 녹색정원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지역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모인공원 조성에 힘쓴 공사 관계자 4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준공을 축하하는 공연도 마련됐다. '잊혀진 계절'로 유명한 가수 이용을 비롯해 정승, 진시몬, 녹색지대, 박상민이 무대에 올라 10월의 마지막 날 가을 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모현동과 신동 일원에 조성된 모인공원은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에 이은 전북자치도 제3호 민간특례사업 결과물이다.

민간특례 공원 조성은 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숲이 풍성한 기존 공원 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형태로 제공하고,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된다.



익산시는 지난 31일 모인공원 준공식을 열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모인공원의 경우 전체 사업 부지 12만 7,150㎡ 중 공원 면적이 73.3%(9만 3,134㎡). 축구장 89개에 달하는 크기다.

모인공원은 '문화 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시설을 배치했다. 그 중심에 숲속 도서관이 있다. 현재 시립 도서관 주관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박하지만 알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공원 산책길에는 쉽게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운동 기구가 설치돼 있다. 또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도 곳곳에 조성돼 있다.

모인공원은 크게 △체험숲 △계절숲 △향기숲 △건강숲으로 나뉜다. 체험숲에는 국가무형유산통합전수교육관 인근에 조성돼 있던 저수지를 활용해 생태학습원을 만들었다. 목재로 만들어진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연이 가득 차있는 저수지와 함께 탁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계절숲에는 그네형 벤치가 있는 '그네정원'과 휴식공간에서 계절마다 색다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소풍정원'이 마련됐다. 산책길을 걷다보면 도로 하나를 건너 향기숲을 만난다. 향기숲에는 기존 곰솔 군락을 활용한 숲정원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너른 마당이 있다.

건강숲은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이다. 휴식을 위한 정자와 의자가 마련돼 있고, 가벼운 운동 기구와 달리기 할 수 있는 트랙도 조성돼 있다. 여기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에 이어 벌써 세번째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 품에 안겨드리게 됐다"며 "어디서나 쉽게 정원 문화를 즐기는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본격화

### 효성중공업 컨소시엄, 시행사로 선정...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난 30일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연합체)과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시작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모의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 1.2GW, 2단계 0.9GW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군산시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은 1단계(1.2GW) 사업 중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배정받은 100MW 규모의 발전사업이다. 수상태양광 100MW 발전시설의 면적은 축구장 150개 정도(1.08㎢)로 연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연합체)은 총사업비 2,600여억 원을 들여 발전시설 건설과 앞으로 20년간 사업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자재 사용과 채용형식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매년 주민의 부가 수익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력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사업시행자는 발전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

군산시는 사업시행자의 발전사업 이익의 공공환원과 지역 상생 방안을 현실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7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지원센터' 가동

### 군산시, 내년 2월까지 운영

군산시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구이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와 지역주민의 제보로 접수되는 위기 가구를 확인하면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난방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협력을 강화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읍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해 대상

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난방 욕구를 파악 및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주거 난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기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시에서 동절기를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필요한 난방 지원을 요청하면 난방용품, 긴급난방비지원, 보일러 설치와 수리, 에너지바우처 등 시에서 지원하는 난방 사업 중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여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

### 높이 20m · 둘레 7.5m · 537살 수령 · 아름다운 수형으로 '가치'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옥서면 선연리에 있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의 국가 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한 기념식이 지난 31일 열렸다고 밝혔다.

군산 하제마을은 군산시 옥서면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로 1900년대 초부터 간척사업을 통해 섬에서 육지가 된 곳이다. 이후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떠나 현재는 팽나무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2020년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의 수령을 조사한 결과 현재 팽나무는 537(±50)살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이에 측정기로 수령을 확인한 팽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나무 높이 20m · 가



높이 20m, 둘레 7.5m로 규모가 크며, 수형이 매우 아름답다고 알려졌다.

마을에 향구가 생기고 기차가 들어섬서 번성하던 시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를 떠나며 사라져간 지금까지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굳건히 지켜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역사적으로

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21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8월에는 오래된 자연물인 노거수가 갖는 역사적 가치와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과 깊은 연관성, 우수한 규모와 아름다운 모양,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의결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국가 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난 31일 오후 2시 지정기념식을 개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12월부터 자동차에 꼭 소화기 비치해야"

### 익산시, 기존 7→5인승 승용차까지 설치의무 확대

익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도 확대됐다.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

졸식 소화기가 아닌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화기로 표면에 '자동차 전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차량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으로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영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